

---

# 2020년 제8호 방송심의보고서

---

2019. 2. 14. ~ 2. 20.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2. 14.	시청률	0.036

### 【총 평】

<여러분의 북北마크> 제56회 방송은 <단박톡> 북한판 왕의 남자들, 2020년 김정은 체제를 움직이는 북한의 실세는?에서는 2020년 김정은 체제를 움직이는 북한의 실세 31인의 명단을 통해 북한의 최상위 파워 엘리트를 공개하고 <북마크TV>는 방문객 800만명! 북한 광명성절 최대 규모 꽃 전시회를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단박톡-북한을 움직이는 왕의 남자들’은 이영종 통일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 북한을 움직이는 권력, 왕의 남자들 그리고 2020년 북한의 새로운 정치적 행보를 살펴보았다. 또, 북한 노동당 구성도, 북한 정부 기구도 등이 소개돼 북한의 권력 현주소를 알 수 있게 했다, 두 번째 코너 ‘북마크 TV’에서는 “북한의 유별난 붉은 꽃 사랑”을 다뤘다. 북한이 붉은 꽃을 애용하는 이유와 김정일 꽃의 탄생 비화 등을 알려주어 매우 새로운 내용이었다.

### 【구성 및 내용】

<여러분의 북北마크> 제56회 방송은 ‘단박톡-북한을 움직이는 왕의 남자들’과 ‘북마크 TV-북한의 유별난 붉은 꽃 사랑’으로 구성하였다. <단박톡>에서는 남북경색국면을 돌파할 2020년 북한 파워 엘리트 31인을 살펴봄으로써 2020년 북한의 새로운 정치적 행보를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권력, 북한을 움직이는 왕의 남자들 파워 엘리트 31인과 특별히 주목할 만한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김정은에게 김여정이 필요한 정치적인 이유, 6년 만에 재등장하여 사망설을 종결한 김경희와 김정은 체제 확립과의 연관성, 삼지연관 현악단 단장에서 김정은 의전까지 담당했던 현송월의 위치, 남북관계의 미래를 담당할 김여정 부부장,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북한 금수저 70년대 황태자 그룹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특히,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만든 ‘북한 노동당 기구도’와 ‘북한 정부 기구도’, 그리고 ‘핵심 파워 엘리트 31인 목록’은 북한 권력과 북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력을 높여준 도구로 효과적이었다.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 역할을 할 인물로 김여정 부부장을 꼽으며 고위급 특사로 파견이 유력시 된다는 분석과 전망도 주목도를 제고했다.

<북마크TV>에서는 북한 최대 꽃 축전 행사의 이모저모와 김정일화 탄생 비밀 등을 다뤄 북한의 실상을 엿보게 했다.

### 【참고사항】

13:25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유사시 체제유지를 위해 후계 문제를 염두에야 하는 김정은’ 자막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김정은’이 바른 표현일 것이다.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2. 14.	시청률	0.025

### 【총 평】

국방개혁 2.0으로 대표되는 국방부의 핵심과제를 중요 정책위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했고 특히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한미 간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방위비 협상'의 경과와 전망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다각도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2.0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상황, 자국 이익 우선의 트럼프 정부,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협상,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한미 간 갈등, 대북관계와 관련하여 현 국방부 입장과 정책을 들어보았다.

외교적인 관점에서의 국방정책과 군 장병 관련 정책으로 크게 나누어져 진행이 되었는데 두 가지 주제 모두 어디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분량으로 잘 다루어졌고 전체적인 짜임새가 좋았다.

### 【구성 및 내용】

대통령 업무 보고부터 시작해서 올해 주요 국방정책부터 국방개혁 2.0의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하고 스마트 국방혁신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잘 다루었다. 2005년부터 이미 국방개혁은 추진되어 왔고 현 정부 들어서 국방개혁 2.0을 완성하여 추진 중이다. 병력을 50만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력 집약적 군 구조에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화된 군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한미 공통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으로 양국의 의견은 일치하고 있으며,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 당국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미 의회에서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동맹, 전작권 통제 등에 대한 외교적인 분야를 다루고 방위비 인상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호르무즈 파병 계획까지 폭 넓게 다루면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9.19 군사합의의 의미와 그 후의 남북 관계, 대북 유화정책과 군 기강의 상관관계 등을 다루었다.

특히, 스마트 국방 내용 중에 AR VR이 중심이 된 '소부대과학화훈련체계'는 4차산업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AI와 더불어 국방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과 방위비협상을 다루면서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빅데이터로 제시한 것은 좋은 구성이었다. 또, 50만으로 병력이 감축되면서 올 수 있는 공백을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훈련체계를 만들어서 극복해 나가겠다는 설명도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진화해가고 있는 국방의 일면을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2. 15.	시청률	0.023

## 【총 평】

충남 공주시가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존 복잡하고 불편했던 관공서 민원신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탈바꿈 시킨 사례와 광주광역시에서는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내 첫 도심 속 국가습지로 지정되기까지의 갈등해결 사례를 소개했다.

충남 공주시의 SNS 민원 서비스는 자발적 행정 참여를 보여주고 있어 의미가 있었고, 그 편리함과 효율성에 따라 주민이 직접 나서서 행정을 제안한다는 긍정적인 취지를 잘 살렸고, 광주광역시는 국가 습지 지정에 관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하천 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례 모두 민관이 어떤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지 방식은 다르지만 시사하는 부분이 컸다.

## 【구성 및 내용】

### ■ 생활민원 접수·처리 SNS로 원스톱, 공주시 카톡 생활민원서비스 도입

시민들이 생활 속 민원을 신고하려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서 이뤄졌는데 충남 공주시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SNS 민원 신고가 가능해졌다. 카카오톡에서 충남 공주시청을 검색하여 친구 추가 후 민원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존 민원접수 방식은 시민 입장에서 복잡하고 불편했는데 이번 SNS 플랫폼 활용을 통해 한결 간편해졌다.

1월 2일 첫 시행 이후 60여 건의 접수가 이뤄졌다. 축제문의, 버스노선 문의도 상당하며 최근 도로 파손 등 시민 안전 위협 민원 접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접수된 민원은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로 처리가 인계된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민원 처리 속도가 한결 빨라졌으며 공주시에서는 페이스북 등 여타 SNS 매체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 국내 첫 도심 국가습지 지정된다. '적극 소통행정으로 환경갈등 해소'

광주광역시 황룡강 장록습지는 하천습지로 도시에 자리잡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우수하다. 이에 국립습지센터는 해당 습지를 정밀조사 했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지역주민 대부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계획된 각종 시설 조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여 반대하였다. 반면 환경단체 측에서는 보존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주장하였다.

개발과 보전 간 첨예한 대립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간담회 등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 여론조사 결과 지정 찬성이 80%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환경부에 국가습지 지정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체계적인 관리부터 훼손된 지역의 복원이 이뤄진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2. 16.	시청률	0.246

### 【총 평】

<KTV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제20회는 충북 괴산에서 보리 싹으로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귀농 6년차 부부의 농사 이야기, “새싹 보리 부부, 희망을 싹 틔우다”편을 방송하였다. 특히, 귀농자의 창업 성공을 위한 의지와 노력, 생산·가공 제조·판매까지 농촌융복합산업으로써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 등을 잘 반영한 구성이었다.

새싹보리 생산에 분주한 가운데도 동네주민과 어울리며 망중한을 즐기는 부부에게서 귀농의 편안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이 긍정적이었고, 내레이터의 해설도 친근감과 전달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새싹보리 분말, 표고버섯 분말, 브로콜리 분말 등을 개발하는 주인공들을 위해 지역 농업 진흥원이 방문해 ‘포장 판로 관련 조언과 지원’을 해 주었는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 【구성 및 내용】

‘새싹보리부부, 희망을 싹 틔우다’에서는 농업의 미래 방향인 ‘6차산업’ 실천 모델을 주인공으로 다룬 기획이 탁월했다. 귀농6년차 부부가 건강식인 새싹보리를 생산, 가공, 판매하는 6차산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면서 귀농을 이룬 스토리를 다뤄 감동을 안겨주었고 우리농업이 나아갈 미래 전형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부각돼 기획의도를 살렸다. 또한, 재배방법과 비결, 가공과정 등을 상세히 공개해 이해를 돕는 다큐 형식의 구성이 돋보였다. 처음부터 ‘농사를 짓기 위해선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아침 식사 장면으로 시작해 ‘새싹보리 하우스 농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며 ‘새싹보리 효능’이 소개되거나 ‘농사를 짓는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 ‘영농방법’ 등이 전개됐다.

귀농을 희망하고 건강식 식품 생산과 판매에 관심있는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점이 강점이다. 새싹보리 상품화 과정을 비롯해 유통, 알카리수, 햇볕에 노출 시키는 등의 비결을 소개했고 주문 받아 당일 택배로 배송하고 유통센터에서 판매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카페에서 새싹보리라떼가 인기를 끄는 모습, 산양삼 분말 생산 준비 등 상품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도 눈에 띄었다.

특히, 건강식품 생산이 보람있고 즐겁다는 농부의 만족감이 긍정의 메시지로 전달됐다. 귀농 6년차 농업인인 부인 박미숙씨는 “새싹보리가 예쁘다, 일하는 과정이 즐겁다” 등의 긍정적 표현을 많이 해 귀농의 만족감을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귀농의 여유로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가미된 점도 긍정적이다. 새싹보리 생산에 분주한 가운데도 동네주민과 어울리고 망중한을 즐기는 부부에게서 귀농의 편안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새싹보리의 효능을 비롯해 HACCP(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차 산업 등 전문용어의 자막 표기도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2. 18.	시청률	0.019

### 【총 평】

<국민리포트>는 ‘오스카의 남자’ 봉준호 감독의 귀국을 맞아 수상작 ‘기생충’을 재조명하고 국내외 호평을 알아본 뒤 연속적으로 봉준호 고향의 환호하는 모습까지 순발력 있게 담아냈다. 또한, 해외방문 이력이 없고 국내 확진자 접촉도 없었던 29, 30번 부부확진자가 발생돼 지역사회 방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방송된 ‘지역사회 전파 막아라’ 리포트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과 캠페인 효과를 높이는 의미있는 기획이었다.

이와 함께 ‘튤립으로 부농의 꿈’ 리포트는 겨울 속의 싱싱한 꽃 내음을 영상으로 표현했고, 내수 침체의 활로를 인터넷 판매로 뚫는 농심이 감동으로 전해왔다.

한 겨울 추억을 소환하는 ‘뜨개질 배우기 열풍’도 친근하고 신선한 소재로 호감을 주었고, 우수를 하루 앞두고 “우수엔 얼었던 대동강도 풀린다...힘 내세요”라는 진행자의 클로징 멘트도 설경 속이지만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줬다.

### 【구성 및 내용】

-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다시 보자  
아카데미 수상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 영화 ‘기생충’의 열기를 전하고 재개봉 극장을 찾은 시민들의 소감을 취재했다.
- 봉준호의 고향 들췌 관광명소 추진도  
봉준호 감독의 고향 대구시를 찾아 그의 생가와 초등학교 등을 직접 소개하고 대구시의 ‘봉준호 거리 만들기’ 계획까지 함께 전했다.
- 지역사회 전파 막아라...코로나 19 차단 총력  
중국 인구가 많은 영등포구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 19 방역에 한창인 보건소 직원들의 모습을 취재하고 방역시스템을 꼼꼼하게 소개했다.
- 튤립 재배...부농의 꿈 이룬다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가운데 튤립으로 업종을 바꾸어 꾸준히 생산력을 높이고 있는 한 농가를 취재하여 그들만의 색다른 운영방식을 소개했다.
- 20대부터 80대까지...뜨개질 배우기 열풍  
최근에 다시 불고 있는 뜨개질 열풍을 소개하고 직접 공방을 찾아 뜨개질을 배우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준비했다. 특히, 뜨개질 열풍을 그저 단순한 취미로만 취급하지 않고 고민과 걱정이 많은 현대인들의 힐링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많은 공감을 샀다.

### 【참고사항】

국민기자의 취재물은 전문기자의 취재 스케일과 짜임새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내용보다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정체성을 살렸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일자	2020. 2. 18.	시청률	0.000

### 【총 평】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99회 방송은 ‘환경 살린다는 수소도시 안전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수소생태계를 조성하는 수소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의 명암,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의 안전성을 우려한 언론의 비판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수소경제와 관련해서 수소도시 개념과 조성정도, 조성목적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다뤄주었고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해서는 연료전지의 안전성과 다른 화석연료와의 비교, 폭발사고 예방책 등을 다뤄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오늘 다룬 팩트 체크 주제는 “연료전지 폭발 위험성이 크다?”, “연료전지발전소 건설 폭발 위험 이유로 갈등 발생?”으로, 환경을 살린다는 수소도시와 수소에너지의 위험 불안에 대한 왜곡보도를 점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에너지가 무엇인지,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수소에너지를 찾는 이유, 폭발 위험성 여부, 수소 도시 조성 사업 의미와 사업 진행 과정, 수소 도시 조성 사업 목적, 수소 도시의 경제적 효과, 선진 해외 사례로 본 연료전지발전소 안정성 문제와 수소 에너지 활용, 정부 계획과 당부 등을 다루었다

#### ■ 수소도시란

도시 내에서 수소를 생산 저장, 이송, 활용하는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고 주거, 교통 등 도시 필수 서비스에 수소를 활용하는 도시이다.

#### ■ 수소 폭발사고 예방책은

기본적으로는 환기만 잘 된다면 수소 누출로 인한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소센서’를 설치하여 수소 누출을 확인한다면 대부분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인다.

#### ■ 수소 도시 조성의 이점은

수소에너지사업의 실증사업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이런 수소에너지생태계를 구축하여 주변에서 운영하면 국민에게 긍정적 인식 및 실증데이터를 누적시킬 수 있다.

#### ■ 수소 도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수소도시가 정착이 되면 각 마을이나 아파트 별로 수소를 생산, 저장하여 필요 시 다시 전기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에너지 낭비 및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 수소 도시의 경제적 효과는

필요한 만큼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전기가 상당히 줄어들고, 맞춤형 소량 생산, 소비 시스템으로 4차산업 혁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석탄이나 가스발전보다 효율이 높아 소규모 설비로 발전이 충분해 도심 내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2. 19.	시청률	0.095

### 【총 평】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 방역망마저 무너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뉴스를 집중 배치해 대구 경북 추가 확진에 따른 방역 대응체계, 청와대 움직임, 경제지원 방안 등을 신속하고 깊이있게 보도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뉴스들도 타 매체의 뉴스와는 확연히 다르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의도로 전달이 된 것이 느껴진다.

타 매체의 뉴스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까지 비중 있게 다루어 시청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는데, KTV 뉴스들은 철저히 팩트만을 위주로 정확하게 다루고 그에 대한 대응체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소개해 주어 불안감을 해소해 주었다.

이 외에 문화재 관련 리포트나 과학 이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영화 소식들도 함께 다루면서 뉴스의 다양화를 시도해서 볼거리를 제공했고 볼거리 차원을 넘어 문화, 과학 분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더욱 강조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 【구성 및 내용】

국가 재난으로까지 부상할 정도로 심각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구 경북지역 추가 확진에 따른 방역 대응체계, 청와대 움직임, 경제지원 방안 등을 신속하고 깊이있게 보도한 기획이 적절하고 탁월했다.

또, 대구 경북지역 추가 확진자 대부분이 31번 환자와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이 시급하다는 점,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감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집중 점검해 보도했다.

이는 국민에게 대응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고 경각심과 캠페인 효과를 높이는 공적 책무 수행과 함께 심리적 극복 방안을 솔루션으로 제시해 정책방송으로서의 의제설정 기능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수용자 만족도를 높인 기획이었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향조정과 파장, 정부의 비상경제 시책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솔루션을 제시한 점이 탁월했다. 경제적 타격을 부르는 불안감과 우려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국민의 심리적 믿음,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을 계기로 봉준호 감독의 기자회견 주요 부분을 영상으로 보여준 <오늘의 브리핑>과 짜파구리 열풍을 다룬 <S&NEWS>도 흡인력을 제고했다. 젊은 층에게 관심 높은 '햇살론 유스', '짜파구리 열풍', '탐재체 발사 성공' 등의 아 이템을 다룬 점은 수용자층 확장이 기대되는 긍정적 기획이었다. 또, 환경탐재체 위성 발사과정 관련 영상, 짜파구리 관련 기생충 영화장면 인서트, 1회용 플라스틱 경고에 관한 그래픽 내용이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2. 2.	시청률	0.078

### 【총 평】

안전을 위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량식품이다.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건강기능 식품이 소비자들을 현혹해 피해를 준다.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제000회는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주제로 사각지대에 놓인 식품안전 이슈를 고발하는 기획이 주목도를 높였다. 특히,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부적합 식품의 유형과 단속 결과, 식중독 예방활동, 식품안전 필수사항과 안전 식품 구매요령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기획이 돋보였다. 소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는 물론 식품 안전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으로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정책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고했다.

### 【구성 및 내용】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허위 과장 광고와 불량식품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각종 부적합 식품의 유형과 단속 결과, 식중독 사례 등을 집중 제기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건강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사실과 다른 다이어트 광고 피해, 유통기한 위조, 성분표시 허위 불량식품 등을 적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불량식품 유통 예방활동, 식품안전 필수사항과 안전 식품 구매요령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정보를 제공한 점이 돋보였고 안전식품 구매요령으로 정부허가 제품인지 확인할 것, 유통기한 변조여부 확인 필요, 건강식품 국가인증마크 확인, 식품포장 훼손 여부 확인 등을 주문했다. 겨울철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된다는 어패류를 익혀 먹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물이 상했다는 식중독 사례자의 경험담이 주의를 환기시켰다. 농축산물 중 부적합 식품 950 개 적발, 식중독 위험 노로바이러스 원인 14.7%, 식중독 검사차량 운영으로 식중독 47% 저감 효과 등 구체적인 통계 자료로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 ■ 식품업체 현장단속

수입 식료품 가게 단속부터 김포 수입 식품 검사소 현장단속, 우수등급 신청 과정과 실제 우수등급을 받은 가게 소개까지 차례로 다루었다.

#### ■ 식중독 피해사례 및 어린이집 급식 안전 교육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어린이집을 찾아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위생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소개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차량 운행과 학교 급식 안전 교육

식약처에서 운행하는 검사차량의 소개와 역할을 먼저 다루고 이번에는 학교 내 급식 위생 실태를 점검했다.

#### ■ 허위 과대 광고

다이어트 보조제 피해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건강식품 위생 점검 현장도 함께 소개했다.